

종로학원 선배의 재수 성공 가이드



연세대 원주의과대학 김시우

재수나 삼수를 하게 되면 대입 시험에 실패했다는 자괴감과 즐거운 대학생활을 하는 고교 동기들을 보는 부러움에 한 동안 마음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또 치열한 입시 경쟁으로 내년에 합격할 하리란 보장도 없습니다. 이러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이 재수, 삼수입니다.

저는 삼수로 목표했던 의대에 진학했습니다. 2년 전, 재수를 시작했을 때 닥치는 가장 큰 문제는 절망감입니다. SNS에 올라오는 주변 친구들의 대학 합격 소식에 부러워하고 자신이 거기에 동참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많이 위축이 되었습니다.

처음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때 목표했던 대학에 추가 예비번호 1번을 받고도 합격이 되지 않아 너무 아쉬워서 재수를 시작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대학 합격의 문이 제 코앞에서 닫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도 대입에 실패한 분들이 느끼는 2월의 절망감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래 가서는 좋을 것이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재수를 타 학원에서 하고 종로학원에서 삼수를 했습니다. 다른 학원에서의 재수 시절은 매우 자유로운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로인해 재수 초반에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재수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결과, 현역 때의 점수보다 못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삼수로 택한 종로학원에서의 10개월을 되돌아보면 2월 즈음의 초반에 가장 밀도 있는 공부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의무 자율학습이라 책상엔 앉아 있어야 해서 펜을 잡고 어떤 공부라도 해야 했습니다. 이 시기에 적응기라 진도도 빠르지 않았고 속도도 적어서 자신이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었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절망은 절망을 잘 추스르고 10개월 뒤의 자신의 모습을 끊임없이 상상하고 기대하면서 그 모습이 실현되기 위한 노력의 발판을 마련해야 합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었을 때 두 번째로 다가오는 문제는 육체적 피로입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 노력만 해서는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즉, 적당한 휴식이 뒷받침 되었을 때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공부는 쉬면서 하는 것이다. 열심히 공부한 것들이 쉬는 시간에 머릿속에 잘 정리되어가는 것이다. 이 말씀에 백번 천번 공감합니다. 저는 일요일에는 학원에 나가지 않고 산책을 하거나 영화를 보며 휴식을 취했습니다.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12시간이면 공부할 시간은 충분합니다. 공부할 시간이 없어 공부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학원 생활에 적응해 감에 따라 격주에 하루 쉬는 것으로 바꾸기도 하면서 제 페이스에 맞게 조절했습니다. 게임을 제외한 휴식거리를 찾아서 주말 하루나 한나절 정도는 햇볕을 쏘이며 휴식시간을 가지는 것이 10개월의 대장정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학원에 다니는 목적은 물론 좋은 선생님들의 강의를 듣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학원에서 해주는 관리를 받아 수능 시험일 까지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학원 선생님들의 노하우가 담긴 수업을 듣고 자율학습시간에는 자신이 부족한 공부를 하며 EBS를 꼼꼼히 보고 기출문제를 익히면 됩니다. 저는 인터넷 강의는 일절 듣지 않았습니다. 강의는 정규시간에 선생님께서 듣는 것으로 충분했고, 자율학습시간에는 그 강의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것에 몰두했습니다. 또 다른 강의를 일부러 찾아서 듣는 것은 자율학습 시간을 낭비할 뿐이라 생각했습니다.

모의고사 준비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평가원이든 학원 자체 모의고사든 모의고사는 '모의'고사일 뿐입니다. 절대 수능 성적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이 부족한 점을 찾아 보완하는 계기가 되는 시험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직 자신만을 믿고 조금 깊은 공부를 할 것을 권합니다. 그래야 어렵게 문제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종로학원에서 삼수를 처음 시작할 때, 담임선생님에 대해 불만이 많았습니다. 담임선생님은 잠시의 틈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밤 10시까지 밥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수업과 자율학습에 매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 이런 담임선생님에 대해 불평했고, 주위에서도 '너무한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생각해보면 또 그만큼 열의를 가지고 자기 반 학생들을 관리해 주는 선생님도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로학원과 담임선생님이 하자는 대로 하면서 내 나름대로는 '학원 공부 이외의 시간에는 철저히 휴식을 취하자.'는 원칙을 세우고 실천했습니다. 제가 삼수 끝에 의대 진학이라는 꿈을 이룬 것은 이렇듯 초기의 불만을 좋게 자기 것으로 만든 것이 주요한 원인이 아닌가 합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최선을 다하고 페이스 조절을 잘해 모두가 원하는 꿈을 이루기 바랍니다. 아는거니까. 다른 걸 해야지. '지루하게 이런 수업을 왜듣지? 지습이나 할까.' 대부분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서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혼자서 수업 시간과는 다른 공부를합니다. 하지만 관점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그 수업시간은 단순히 개념이나 지식만을 습득하기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선생님임과 '소통'하고 '집중'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소통의 능력과 집중력을 기르는 것은 평가원에서 가능 중요시하는 평가 항목인 '주어진 시간 안에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이해해서, 적용하는 능력'에도 잘 부합하는 부분입니다. 그 능력을 바로 학원 수업시간을 통해 기르는 것입니다.